

납작만두, 꽃게튀김, 소라꼬치, 삼겹살짜장면... 미식의 천국

우리나라 최대 먹거리 전통시장

지구별 전문화된 상품, 깔끔한 먹거리

야시장의 매력에 국내외 관광객 풍덩

대구서문시장

조선시대 전국 3대 시장 중 한 곳이던 서문시장. 이곳은 대지 면적 2만7062㎡(8190평), 점포 수 약 5000여 개, 상인 수 2만여 명으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주단, 포목 등 섬유 관련 품목을 주로 거래하는 유명한 원단 시장으로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대구 서구 내당동에 위치한 서문시장은 1·2·4·5지구와 동산상가, 건해산물상가 등 6개 지구로 구성돼 있다. 한복, 액세서리, 이불, 의류, 그릇, 건어물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는 이곳은 품질 좋은 원단만큼 먹거리 많기로 이름난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일렬로 늘어선 각종 먹거리 점포들은 무척이나 깔끔한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질서 있고 정비가 잘된 데다 바닥도 깨끗해 기분부터 좋아진다. 대구의 대표 별미 납작만두, 꽃게를 통째로 튀겨낸 꽃게튀김, 통통한 소라살만 골라내 꼬치에 꿰 소라꼬치, 짜장면 위에 삼겹살 조각이 톡 밥처럼 얹혀 나오는 삼겹살짜장면 등 특

색 있고 매력적인 먹거리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지만 서문시장을 오래 다닌 이에 게 이곳의 맛집을 꼽으라 하면, 십중팔구 고민도 않고 칼제비를 말한다.

1지구와 4지구를 이어주는 육교 아래 위치한 국수골목에서 맛볼 수 있는 칼제비는 인심 좋게 그득 담아낸 양과 저렴한 가격으로 줄을 서서 먹을 만큼 인기가 좋다. 1·2·4지구에는 섬유 원단이나 한복, 의류 등과 같은 섬유 관련 제품을 파는 곳이 집중돼 있고, 가방이나 등산복 등 전문 의류를 파는 곳도 산재해 있다.

건해산물상가에서는 다양한 건어물이 판매되고 있으며, 다른 지구에도 각기 전문화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 서문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카페가 많다는 것이다. 익숙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부터 개인 카페까지 총 20곳이 넘게 자리해 있다. 2지구 지하에도 최근 카페와 식당이 많이 생겨나며 젊은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야시장이다. 올해 개장했지만 30만 명 이상이 방문하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이곳은 규모 역시 전국에서 가장 크다. 350m 거리에 80여 개의 상점이 늘어난 서문야시장은 미식의 도시 대구의 진가를 제대로 드러낸다. 대구막창과 새우튀김, 회오리감자 등 먹거리가 가득하다.

맛은 물론이고 눈으로 얻는 행복도 충분하다. 야경을 마차도 탈 수 있으니 그 순간만큼은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도 좋다. 서문시장은 지난해 외국인인기가 좋은 전통시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접근성

이 좋고 즐길거리와 먹거리가 많은 것과 더불어 주변 관광지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바로 동성로, 근대골목, 약령시장, 김광석거리 등의 인근 명소가 이곳 시장을 더욱 빛내고 있는 것이다. 대구지하철 3

호선 서문시장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4분이면 도착하는 서문시장.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영업하며, 매달 첫째·셋째 일요일은 휴무다. 야시장은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영업하며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한편, 대구시와 대구관광재단은 11월 말까지 '대구 여행도감 챌린지'에 들어갔다. '대구 여행도감 챌린지'는 모바일 기반 비대면 투어 프로그램으로 객관식 퀴즈 미션을 통해 손쉽게 참여가 가능하다. 여행객들은 시가 미리 선정한 '대구 관광지 30곳'을 방문해 QR코드(배너)를 스캔한 뒤 회원가입과 GPS 위치 허용만으로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

전통시장인 서문시장, 칠성시장을 비롯해 음식테마골목 안지랑 곱창골목, 무침회 골목도 '대구 여행도감 챌린지' 투어를 통해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할 예정이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구 여행도감 챌린지 투어를 통해 기존 알려진 관광지를 재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신선했던 관광지는 가족과 연인이 함께 가벼운 나들이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한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여행객들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지속해서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중소기업벤처부

사진=대구시

정리=정규호 기자

카카오, 전통시장 상인 지원 나선다

카톡 채널로 단골 확보... 교육·마케팅·홍보 지원
'국민 강사' 김미경, 디지털 튜터 관리·운영 등 맡아

카카오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에 나선다. 지난 4월 발표한 상생 방안의 일환이다. 카카오는 22일 카카옴팩트, 온라인 지식 교육 플랫폼 MKYU, 신영시장 상인회와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4자 간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 프로젝트'의 시범 적용 대상으로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을 선정하고 다음 달 중순부터 프로그램에 착수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지난 4월 사회의 지속가능성 기여를 위한 카카오 공동체의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및 지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5년간 총 1000억원의 상생 기금을 집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프로젝트는 소신을 갖고 사업하는 전국의 상인들이 카카오톡 채널로 단골을 확보하고 다

양한 모바일 마케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프로젝트의 첫발로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선정했다.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와 카카옴팩트는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자원을 비롯해 교육, 마케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카카오톡 채널을 기반으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해 시장 내 개별 점포의 단골을 확보하고, 오프라인 방문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는 신영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 웰컴키트, 단골이 채널 추가 시 지급되는 쿠폰 비용 지원, 채널 메시지 발송을 위한 무상게시 등을 지원한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익숙지 않은 상인들을 위해 원하는 시간에 점포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환경도 조성한다. 손쉬운 게임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내 교육 전용 공간인 '특채널 라운지'를 마련해 '디지털 튜터'를 파견한다. 디지털 튜터는 약 2개월간 상주하며 카카오톡 채널 개설 및 활용 방법 등을 교육하고 1대1 컨설팅도 상시 지원한다.

상주 기간 이후에는 디지털 튜터와 전통시장 상인들이 함께 접속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모바일 공간에서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 강사' 김미경 씨가 설립한 16만 지식 커뮤니티 MKYU는 교육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 디지털 튜터 관리·운영 등을 맡는다. 카카오는 신영시장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전국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뒤 총 10곳을 선정해 11월부터 소상공인 프로젝트 첫 번째 시즌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에서 도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캠페인을



카카오 판교오피스. 사진=카카오

운영한다. 이달 새롭게 시작한 행동 참여 프로젝트 '모두의행동'에서 이용자가 우리 동네 소상공인 응원에 참여하고 인증하는 캠페인을 7월 한 달간 진행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최근 ESG 총괄 조직 내 '소상공인 상생 TF'를 신설했다. 전통시장뿐 아니라 전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손쉽게 단골 확보, 홍보 및 마케팅, 재방문·재구매를 위한 고객 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정규호 기자 jkh@meconomynews.com

aT,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 개시

마트·시장 20~30% 할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소상공인 지원과 국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농할갑시다'라는 주제로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가 마트나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구매액의 20~30%(행사주기별 최대 2만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10일부터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농할갑시다'라는 주제로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가 마트나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구매액의 20~30%(행사주기별 최대 2만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행사를 진행하는 유통업체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온라인몰, 친환경매장, 직거래매장, 전통시장 등이다.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통업체별 할인행사 기간과

품목은 다를 수 있어 전단지, 매장 내 광고판, 앱 등을 통해 할인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도 재래시장은 온누리 쿠폰에 온누리 전통시장 온라인몰, 놀러와요 시장 앱, 농할가맹점, 바로마켓 등 직거래장터에서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해 주고 있다.

아울러 aT는 2020년부터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대한민국 농할갑시다, 농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지난해 9157억원의 국산 농축산물 구매 성과로 이어졌다.

계란, 배추, 무, 쌀 등 국민식탁에 빠지지 않는 주요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계속하고 추석 명절·김장 행사 등 특별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aT 김춘진 사장은 "앞으로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이성복의 소주 한 잔



젊음의 거리 연남동의 풍성한 전집
핫한 플레이스 'AK&홍대'와 맞걸리

참새방앗간, 홍대입구역

닭볶음탕에 해물파전 김치전 굴전(물론 영어로 R자 들어가 달에만 먹는)... 하산한 등산객들이나 복작거릴만한 막걸리 주점에 젊은이들이 가득 하다. 전위적인 아티스트들과 10대들이 몰려드는 핫한 아트 공간 'AK&홍대' 부근에 왠 막걸리집인가 하겠지만 연남동이 뜨기 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대학가 민속주점 골목이다.

홍대입구역 8번출구 보도 옆 목이 좋은 자리다. 길가에 전 부치는 주방 공간을 열어놓아 장터 분위기가 물씬난다. 자리에 앉자마자 먼저 요리 시간이 걸리는 닭볶음탕부터 주문할 일이다. 한 마리나 반 마리나 가격이 비슷하니 한 마리가 낫겠다. 국물 남겨 밥 비벼먹는 재미도 쏠쏠. 요즘 주점에서 보기 드문 고추장찌개도 별미다. 동그랑땡 조개살 찿고 고추호박전은 단품으로 추가할 수 있는 전 전문점이다. 바로 옆 집에도 비슷한 주점이 있어 홍대 앞임에도 자리 잡기 부담없다. 지상의 단칸 룸이라도 차지한다면 '대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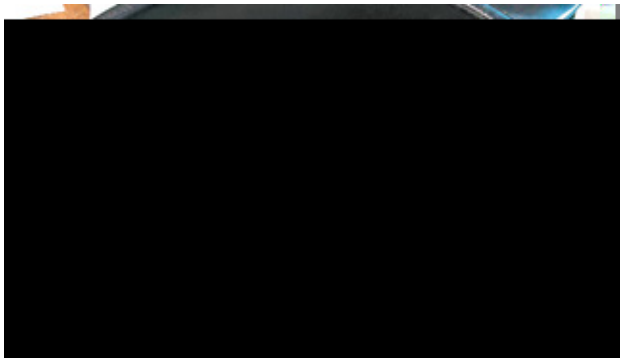
돼지머리, 가오리찜, 홍어회 한 상
연서시장 골목 가성비 최고의 식당

여수식당, 연신내역

연신내역 연서시장은 먹거리 장터로 꽤 융성한 곳이다. 대형마트도 저리가라 할 만큼 과일 채소 육류 생선 가게들이 성업 중이다. 떡볶이 같은 군것질과 안주거리가 즐비해 주말이면 식당마다 손님들이 꽉 들어찬다.

여수식당의 주 메뉴는 돼지머리 수육과 가오리찜. 돼지머리 수육은 김이 모락모락, 방금 돼지를 잡은 듯 마냥 부드러다. 새우젓, 생마늘과 함께 하니 시나브로 목을 타고 넘어간다. 살점 풍성 가오리찜은 간이 심심해 접시를 두르고 있는 양념을 살짝 보태야 제 맛이 난다. 매콤달콤 졸인 제육볶음은 돼지 기름과 매운 양념이 만나 적당한 간을 내고 있다.

안주로도 반찬으로도 좋다. 양이 커서 2인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 홍어회는 초보자도 접근 가능한 숙성도를 보인다. 마나리에 써서 먹다가, 돼지머리와 김치 없으면 바로 삼합이다. 청국장도 여느 전문집 못지않게 구수함이 그만이다. 어느 안주 하나 결코 모자람이 없다. 가성비 쥘이다.



항사리에 가면 회냉면과 국밥
육수의 정성, 고기 요리에 엄지 척

항사리맛집합동홍냉면, 가평군

상호명 그대로 가평 항사리의 맛집이다. 함흥식 냉면과 수육이 주메뉴인데, 소머리국밥도 유명해져서 철을 가리지 않고 냉면과 소머리국밥 '양수겸장'이다. 고구마전분으로 가늘게 뽑은 면발, 간장 절려의 진한 맛을 내는 육수가 특징이다. 방문자 후기를 보면 달콤매콤의 조화를 갖춘 양념 덕분에 회냉이나 비냉을 선호하는 손님들이 많다. 소머리국밥(특)은 고기가 듬뿍 더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부위 고기들로 맛의 다채로움을 더한 프리미엄 국밥이다. 머리고기를 어찌 그리 쫄깃하게 잘 삶아놓으셨는지...

생버섯불고기류 1인분 뚝배기에 내는데 아주 균형 잡힌 맛을 낸다. 버섯, 당근, 당면, 양파 등 채소를 딱 필요한 만큼만 넣고 좋은 부위의 소고기를 쓰는 모양이다. 강추다. 운전자가 아니라면 소머리 도가니 등을 담은 모듬수육으로 한 잔 하면 좋겠다. 가평의 아침고요수목원, 잣향기푸른숲, 가평 크리스탈밸리OC 등과 가깝다. 실내도 깔끔해서 더 좋다.



삼각지의 오마카세 숨은 명소
밥보다 회가 많은 회덮밥 인기

작은수산시장, 삼각지역

점심엔 회덮밥, 저녁엔 오마카세만. 숨어있는 고수의 식당이다. 회덮밥은 초밥에 방어·농어·연어·참치와 생게·연어알 등을 얹어준다. 치라시즈시(散らし寿司)처럼 회를 살짝 흘려주는 게 아니라 가이센동(海鮮丼)보다 더 많이 완전히 폭 덮여준다. 초밥에 회를 듬뿍 덮어주니 회초밥이라고 해야겠다. 하지만 이거야 초밥보다 회가 더 많으니... 생게덮밥만 해도 수산시장에서 갖 떤은 생게알 한판이 한 그릇에 다 들어와 있다.

오마카세를 위해 8~10인용 별관도 있다. 생게알, 전복, 전복내장 셀러드, 해삼, 명게, 소라 등 싱싱한 해산물 접시가 이어지다가 평어와 참돔회가 낚시꾼 갈로 썬 듯 두툼하게 썰어져 나온다. 뱃살이 살살 녹는 참치회덮밥과 해물성게라면으로 마무리. 철 따라 구성이 달라지고 톡하면 주판장 추가 매뉴도 나온다. 원대구랑 골목에 숨어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가장 가까운 가게라고 할 수 있다. 주인은 낚시 고수이고 이를 돕는 동생은 이태원 '해천'의 주인이었다.

뉴데일리대표 sblee@newdaily.co.kr